

## 조이스의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강 미 선

### I. 들어가는 말

조이스(James Joyce, 1882-1941)는 『율리시스』(*Ulysses*)의 마지막 장인 18장<sup>1)</sup>을 “‘전인간’(prehuman)이자 추정하건대 ‘후인간’(posthuman)인 대지로 묘사하려 했다”(L I 180). 그리고 몰리(Molly Bloom)를 “인간의 환영”(human apparition)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L I 180). 이 말은 몰리를 “비인간”(non-human)의 층위로 해석한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비인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프리휴먼”의 속성이 “포스트휴먼”으로 “현실화”(actualization)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sup>2)</sup> 조이스는 몰리를 “프리휴먼”으로 해석한(Borg 1) 위버(Harriet

---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5374).

1) 본 논문은 『율리시스』의 각각의 에피소드에 『오디세이아』(*Odyssey*)에서 차용한 소재목을 사용하지 않고 ‘장’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조이스가 출판할 때 소재목을 제거하라고 말한 이유에 근거한다(Birmingham 198).

Weaver)에게 보낸 답장에서 포스트휴먼을 첨가하면서(L I 180) 프리휴먼과 포스트휴먼을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렇게 포스트휴먼이란 신조어를 만든 장본인인 조이스(Ramey 95)에게 현재 여러 갈래로 흩어진 포스트휴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이스가 비인간으로 해석하는 포스트휴먼이 무엇인지 텍스트를 통해 분석하고 아울러 조이스의 포스트휴먼과 작금의 포스트휴먼과의 연계성도 밝혀볼 것이다.

몰리를 비인간으로 해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엘먼(Maud Ellmann)은 18장의 주제를 여성이나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 이전의 또는 이후의 키스(kisses)로 충만한 “미지의 땅”(a terra incognita)으로(108), 보그(Ruben Borg)는 몰리와 대지를 연관시키며 몰리를 “원초적 생성 요소”(1)로, 그리고 그 이전에 데이비스(James Davis)는 18장의 몰리를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로 해석했다(128). 본 연구도 몰리를 비인간으로 해석한 것과 맥을 같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프리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의 연속성을 밝히지 않은 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프리휴먼의 씨가 포스트휴먼으로 받아되는 것을 탐구할 것이다. 프리휴먼이 포스트휴먼으로 받아되는 것은 “미지의 땅”으로부터 “태초의 물질”이 형상을 갖추는 것인데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따리(Félix Guattari)적으로 풀어보면 “절대적으로 탈영토화된 대지”(the Earth, the absolutely deterritorialized)(*A Thousand* 56)인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인본주의(humanism) 주체가 아닌 “차이 자체”로 노니는 질료가 현실화하여 포스트휴먼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들뢰즈와 가따리의 개념이 1세기 전에 조이스가 제기한 “포스트휴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조이스의 사유가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서 자초한 문제의식을 포스트휴머니스트들과 ‘이미’ 공유한 데에 있을 것이다. 조이스가 포스트휴먼이

---

2) 조이스가 말하는 “전인간”과 “후인간”은 이후로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과의 맥락에 집중하기 위해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란 신조어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레이미(James Ramey)가 상기시키는 것도 현재의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이 대두되기 이전에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고민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조이스가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becoming) 개념을 조이스의 포스트휴먼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조이스의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과의 맥을 잇고자 한다.<sup>3)</sup>

코비드 19(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인간이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인류세(Anthropocene)를 인정하는 단계로 진입했고 이에 따라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증폭시키며 인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조이스가 그리는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 대지”는 ‘진보’라는 인간의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깨어나서 계통적 진화도 아니고 퇴행도 아닌 공생을 위해 역행(involution)하는 탈영토화된 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이스의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 대지는 다시 쓰기도 아니고 미리 쓰기도 아닌 모델이 없는 ‘새로 쓰기’이며 작금의 포스트휴먼에 응답하는 복선처럼 읽힌다. 더구나 조이스가 경험한 제1차 세계 대전의 폭력성이 『울리시스』에 녹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조이스는 합리적 인본주의 가치인 휴머니즘이 제 소임을 다했고 그것의 역사에서 깨어나려 한다. 그래서 조이스는 페넬로페(“Penelope”)에게 마지막 말(“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sup>4)</sup>을 맡긴다(L I 180).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 조이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측된 종말인 비관주의를 따르지 않고 “상호 평

---

3) 본 연구는 지면상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대한 논쟁을 담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조이스의 포스트휴먼을 이해하는 데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무리 없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조이스는 포스트휴먼이란 단어를 만든 창시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작금의 포스트휴먼 담론에 구심점이 되는 텍스트를 제공한다.

4) 조이스가 페넬로페에게 맡긴 마지막 말은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너무나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법』(Human, All Too Human)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U 16.1099)<sup>5)</sup>을 이루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 대지를 문학에서 탄생시키고자 한다. 같은 맥락으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에 의해 지배되는 공포에서 연유한 헤일스(Katherine Hayles)가 말하는 포스트휴먼도 비관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가 말하는 포스트 휴먼은 “반인간(antihuman)으로 구성될 필요도, 자유주의 휴머니즘으로 회귀할 필요도 없다”(287)라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이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하며 공생을 도모한다.<sup>6)</sup> 그렇다면 포스트휴먼의 ‘포스트’는 인간 이후나 인간 역사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엘리스(Erle C. Ellis)의 말대로 “좋은 인류세”로 기억될 시간은 아직 남아있(257-61)지만, 관건은 ‘포스트휴먼-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이스의 프리휴먼이 포스트휴먼으로 받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포스트휴먼 대지가 무엇인지를 『율리시스』의 두 주인공인 블룸(Leopold Bloom)과 몰리를 통해서 살펴볼 본 연구는 2장에서 블룸이 포스트휴먼이 되는 과정을 논증하기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becoming-woman)의 의미를 살펴본다. 3장은 텍스트 분석으로 아내의 블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블룸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15장의 “사이-시간”(entre-temps)에서 중력을 잃고(U 15.4433) 탈중심화되면서 포스트휴먼으로 부상(현실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4장에서는 몰리의 사유를 통해 조이스가 묘사하는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인 대지가 영원히 도래할 미래로 공생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

5) 소설 텍스트 『율리시스』의 인용은 이후 본문 속에 장과 줄로 표시한다. 인용문은 이종일의 번역본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6) 이에 덧붙여 헤일스는 “현재 포스트휴먼의 일부 버전은 반인간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인간과 지구를 공유하는 생물학적, 인공적인 다른 생명체의 장기적인 생존에 도움이 되는 다른 버전을 만들 수 있다”(291)라고 말한다.

## II. 들뢰즈의 여성-되기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는 “가시성의 불가피한 양상”(U 3.1)인 가시적 층위가 아닌 미분(微分)화된 차이들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 층위를 또 잠재성의 차원이라 말할 수 있고 잠재성의 차원에서 잠재적인 것은 강도에 따라 분화한다. 잠재적인 것은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현실화 과정을 겪는다.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는 현상계 차원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 자체”를 현실화하는 개체화(individuation)<sup>7)</sup> 과정이므로 “형상들의 형상으로 ‘이미 현실화한 사물’(entelechy)”<sup>8)</sup>(9.208-09)들로 존재하는 공간화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화 운동은 들뢰즈가 말하는 “표면 효과”(surface effect)로서 삶의 지층의 표면에서 지배 담론의 균열과 함께 부상하면서 사본이 아니라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말하면 “표면 효과”는 공간화된 시간이 아니라 “사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탈구된”(out of joint) 시간<sup>8)</sup>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이 아닌 잠재적인 것과 조우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확장된 인식의 지평에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화하는 것은 ‘현실화된 것’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는 반복되는 운동이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착이 아니라 변용에 열려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여성과 무관한 여성-되기는 생물학적 여성이나 성차로서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주의(feminism)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7)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개체화 과정은 퍼텐셜 에너지로 가득 찬 준안정적인 전개체적 실체가 상(相)으로 출현하는 변환(김재희 19-44 참조)이라는 점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현실화 과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 햄릿(Hamlet)은 1막 5장 885행에서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고 축어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이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들뢰즈는 이음매를 라틴어의 경첩(cardo)으로 해석한다. 경첩에서 빠져나온 시간은 시간의 질서에서 탈구된 “미친 시간으로 ... 자신이 텅 빈 순수한 형식임을 발견하는 순간이다”(로도 워 243).

해야 한다. 여성-되기는 “여성과 남성을 대립시키는 이원적 기계 속에서 포착되고, 형태에 의해 한정되고, 기관과 기능을 갖추고 주체로 규정된 여성”(A Thousand 275)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되기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로 또는 미시-여성성의 근방역(zone of proximity)으로 들어가는 입자들을 방출하는 것,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분자적인 여성을 생산하고 분자적인 여성을 창조하”(A Thousand 275)는 문제이다. 분자적인 여성을 방출하는 것은 기관화된 신체가 아닌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분기하는 운동이다. 즉 들뢰즈의 여성-되기는 “분자적(molecular politics) 정치학”으로 “퇴적적 정치학”(molar politics)(A Thousand 276)과 불가분의 관계로 피비우스(Mobius) 띠처럼 그것의 이면이다. 즉 ‘퇴적적 정치학’인 “조직의 판”(plane of organization)이 고른판 위에서 형식들과 주체들을 형성한다면, 분자적 정치학은 기관 없는 신체인 “고른판”(plane of consistency)에서 노니는 분자 운동으로 “조직의 판을 빠져나가고 ... 미시배치물의 힘을 이용하여 형식들을 교란한다”(A Thousand 270). 이 지점에서 들뢰즈는 여성의 역사에 무심하다는 여성주의자의 비판을 받는데(들뢰즈의 존재론의 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른판은 들뢰즈의 또 다른 개념인 “알”(egg)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고른판”이나 “기관 없는 신체” 그리고 “알”은 모두 ‘현실화한 것’의 이면에서 잠재적인 것이 흐르고 있는 표면이다.

분자적 운동인 여성-되기는 이분화된 두 개의 성도 그 이분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양성성도 아닌, ‘경험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표면에서 미세 지각인 “ $n$ 개의 성”(n sexes)을 방출한다. 거두절미하고 말한다면 “여성-되기”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 $n$ 개의 성”을 방출하는 여성-되기는 탈영토화된 강렬함들인 동물-되기, 유대인-되기, 어린이-되기, 세상 모든 사람-되기, 흑인-되기 그리고 비인간-되기 등과 같이 소수자-되기의 다른 이름이다. 소수자-되기로서 각각의 되기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도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리즘적으로 뻗어 나가는 이질적인 것들과 공생적인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은

하수”(a whole galaxy)(*A Thousand* 251)이다. 본 연구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하나의 “다양체”(multiplicity)로서 “여성-되기”는 남성적 지배 담론에 소외된 여성을 이해하는 인본주의적 측면이 아니라 기관화된 신체가 자신의 몸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떼어내면서 ‘남성중심주의’에서 탈중심화하는 운동이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서 휴머니즘적 주체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의 백인, 남성, 이성애자, 그리고 사유재산을 소유한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남성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은 또한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다시 남성이 근대적 인간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떼어내는 것은 또한 “비인간-되기”라고 말할 수 있다. 들뢰즈의 비인간-되기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서 비인간을 정의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 둘의 구분이 무화되는 “기관 없는 신체”로 퇴각하고 프리휴먼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인”(Homo natura)(*Anti-Oedipus* 21, 33)의 이미지를 닮는다. 인본주의적 인간이 아닌 생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연인은 고르판 위에서 ‘이분화된 성’만이 아니라 “*n*개의 성”을 방출하는 소수자로서 “비인간”(inhuman)이다.

모든 되기는 “소수자-되기”(becoming-minoritarian)로 소수자는 모든 생성의 주체인데 왜 여성-되기가 모든 되기의 열쇠(*A Thousand* 277)이며 그 이름이 ‘여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은 성의 수에 비교해서 ‘다수파’(majority)가 아니면서 ‘다수자’(majoritarian)가 되는 “남성 기준과 관련된 여성의 특별한 상황”(A *Thousand* 291)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그래서 “소수자 자체인 모든 되기가 여성-되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 같다”(A *Thousand* 291). 다수파는 수와 관계없이 권력 상태 또는 지배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남성에 뒤지지 않는 여성은 ‘소수자’로서 다수자에 대립한다.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소수자-되기는 지배 담론에서 일탈하는 한에서 모든 사람의 소수자-되기이며 모든 사람의 잠재적 역량 되기이다(A *Thousand* 105). 그렇다면 여성주의에서 비판하는 것과 달리 들뢰즈와 가타리가 소수자-되기의 대표 명칭으로 ‘여성’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몸에 각인된 그

래서 지금도 겪고 있는 ‘비정의’로서 여성의 역사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성-되기는 소수파(minority)로서 여성이 아닌 소수자를 대표하는 개념에 사용하는 명 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되기는 소수파로서 전복을 통해 다수파가 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즉 여성-되기에서 여성은 근대적 주체가 아닌 “현존하지 않으면서 실재하고 추상적이지 않으면서 이념적인”(Deleuze, Proust 61) “최소한의 주체”(a minimal subject)(*A Thousand* 270)로서 변용하는 주체이다.

당연한 귀결점으로 여성-되기는 성이나 성차와 무관하므로 여성이 여성-되기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여성운동에서 보아왔던 상태나 집합으로서의 여성이 지배 담론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으려다 다수파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되었다면 그런 여성은 “생성이나 과정으로서 소수자”(A *Thousand* 291)가 되는 여성-되기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 여성-되기는 재영토화가 아니라 탈영토화로 나아가는 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되기는 기존의 퇴적적 정치학의 여성주의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의 이면에서 표면으로 부상하는 “분자-되기”이며 본 연구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해서 포스트휴먼을 탐구한다.

### III. 블룸의 여성-되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여성-되기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남성의 여성-되기는 여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로서 분자적 여성을 순간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재현되지 않는 “이것임”(haecceity)과 마주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스티븐(Stephen Dedalus)이 “발견의 문”(U 9.229)이라고 말한 실수(error)를 통해 블룸이 여성-되기의 문턱을 넘는 것을 추적한다.<sup>9)</sup> 성과 성별의 차이로서 남성의 정체성을 버



리고 여성을 모방하는 것이 여성-되기는 아니지만, 블룸의 여성-되기는 피비우스 띠처럼 의식 세계의 경험적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실재하는 질료의 흐름이다. 블룸이 몰리라는 한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 ‘이것임’과의 조우는 현실에서는 은폐되는 그러나 조이스가 가장 현실적인 장이라고 말한 사창가에서 일어나는 이유이다. 가시성과 가청성의 불가피한 양상(U 3.1, 3.13)의 한계를 넘어 생성의 욕망을 펼치는 15장에서 조이스는 블룸을 통해 환상적인 것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한정된 틀을 벗어나”(책슨 235-36)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하”(책슨 237)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블룸의 여성-되기를 블룸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사이-시간”에서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이것임”과 마주하는 데에서 찾는다.

### 3.1. 다수파로서 블룸

블룸과 블룸의 아내 몰리는 당대의 가부장적 부부 형태의 전형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남편인 블룸이 아내의 아침상을 차리고 아내는 그 아침상을 침대에서 당연하게 받으며 찻주전자를 행구라는 요구도 한다. 현대의 독자에게 블룸은 반-가부장적 남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의 더블린에서 남편이 아내의 아침상을 차리는 이런 행동은 도착(perversion)적으로 여겨진다(Kiberd 83). 여기서 도착은 성적인 의미보다 상투어로서 기이한 행동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필자는 블룸이 아내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현대의 독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 평등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블룸이 ‘기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특이자”(anomalous)<sup>10)</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블룸은 더블린의 다른

9)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The Weird and the Eerie*)을 쓴 피셔(Mark Fisher)가 “문, 문턱, 포털들의 중요성은 사이라는 개념이 기이한 것에 결정적임을 의미한다”(44)라고 말했듯이 블룸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통해 발견의 문을 발견하고 그 문턱을 넘는다.

10) 특이자의 어원은 비정상상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가 아니라 “불균등한 것, ... 탈

남성들과 달리 소수자-되기에 근접해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11)</sup> 사실 블룸이 아내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은 ‘도착’의 사전적 의미대로 그의 성적 취향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연구에서 블룸이 성적으로 지나치게 충만해 있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사실 블룸은 성적으로 과잉되어 있고 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블룸은 4장에서 아침거리를 사러 가서 이웃집 젊은 여성의 엉덩이에 관심을 보이며 그녀를 따라간다. 그리고 5장에서는 9시 45분부터 디그넘(Patrick Dignam)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전차를 타기 전까지 ‘1시간’ 여 동안 (Gunn and Hart 40), 모르는 여성과 은밀한 서신 교환을 하고 낯선 여성의 다리에 탐닉하는 관음증적 증상을 보인다. 나보코프(Vladimir Nabokov)는 이런 이유로 블룸을 “대단히 평범한”(very ordinary) 인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287). 나보코프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블룸의 성적 취향은 들뢰즈적으로 말하면 “일탈”(perversion)(*The Logic of Sense* 133)로 블룸이 소수자-되기의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 생성의 동력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나 블룸의 성적 과잉이 초점화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이스

---

영토화의 침점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찾는다(*A Thousand* 243-44).

- 11) 사실 블룸이 아침상을 차리는 또 다른 이유는 남녀 평등적 차원도 아니지만, 도착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블룸은 아내에게 보상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다. 블룸은 아들(Rudy)이 죽은 11년 전부터 아내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혼외 관계를 묵인하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부부의 성적 관계의 부재는 블룸의 자의적 결정이고 아내는 “그가 짠 계획”(18.1008-09)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또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몰리는 블룸이 “또 죽을 수 있는 아이”(18.1450)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12) 들뢰즈와 가띠리에게 완성(completion)은 해당 과정의 영속성을 의미하지도 않지만, 목적이나 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Anti-Oedipus* 5). 그것은 차이의 반복처럼 해당 과정의 완수를 향해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띠리는 억압되지 않는 리비도(libido)가 이탈에너지인 누멘(Numen)으로 그리고 잔여 에너지인 볼루타스(Voluptas)로 흐르는 과정을 『안티 오이디푸스』(*Anti-Oedipus*) 1장 5절에서 논증한다.

는 다수자인 서술자를 내세워 부르주아(bourgeois) 가부장적 남성의 이상적인 모델에 어긋나는 블룸의 성적 취향을 아내의 블룸이 초래한 일탈처럼 독자를 유도하는 남성적 글쓰기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블룸의 아내와 보일런(Hugh Boylan)의 밀회를 전경화하고 블룸의 성적 취향은 후경화하면서 블룸의 일탈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그의 성적 취향을 초점화하지 않는다. 블룸이 오쟁이 진 남편이 되는 것은 블룸의 탓이 아니라 아내의 탓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더블린 사회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몰리는 추문의 주인공이 되며 그녀의 외도는 너무도 쉽게 의심되고 아무나 희롱해도 되는 여자로 그려진다. 심지어 남편인 블룸조차도 몰리의 외도에 대해 상대방인 보일런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가부장적 사회라 하더라도 남편인 블룸이 아내가 받는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비정의”(injustice)(U 12.1474)이다. 블룸은 유대인에 대한 비정의를 말하(12.1470-74)면서도 아내가 받는 부당함에는 비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것은 다수파인 블룸이 아직 “발견의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블룸이 ‘유대인-되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소수자로서 몰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다수와 동일성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소수자-되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A Thousand 291). 블룸의 여성-되기는 블룸이 한 여성으로서 몰리를 이해하고 남성의 권위를 자신의 신체에서 떼어내고 인지된 현실에서 지각되지 않았던 “이것임”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 3.2. “이것임”과 조우

가부장적 배치에서 암시될 뿐 언표화되지 않는 블룸의 여성-되기는 아내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을 교란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시작된다. 블룸의 여성-되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유물론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념적이라 해도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비트겐 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말한 것처럼 “나의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세계의 한계”(무작정정계섭 229, 재인용)라면 언어로 재현될 수 없는 블룸의 여성-되기는 15장의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사이-시간,” 혹은 “탈구된 시간”에서 발산하고 인식의 영역은 미분화된 차이들의 층위로 확장된다.

구체적으로 블룸이 어떻게 여성-되기의 과정에 이르는지 추적해 보자. 블룸이 15장의 시계 시간의 바깥에서 “이것임”과 조우하기 전에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자. 블룸은 사실 데이비 번(Davy Byrne)이 말하는 것처럼 “안전한 남자”(8.982)가 아니다. 블룸은 기혼 여성들에게 블룸을 조장하고, 미혼자인 거티(Gerty MacDowell)의 처녀성도 빼앗았다. 거티는 블룸을 흘려보면서 “피묻은 손수건”을 보여주고 자신은 속세의 전 재산을 바쳤다고 억울해한다(15.372-76). 거티의 항변은 바로 이전에 포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환락가에는 처녀가 없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고 블룸이 결혼을 할 것도 아니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블룸은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소녀(Mary Driscoll)에게도 성적 일탈을 일삼기 때문에 물리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블룸이 말했던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놈”은 보일런이 아니라 그 자신을 향한 말이 된다. 블룸은 여성들에게 고발당하지만, 그들이 당한 수모에 ‘공감’하지 않는다. 블룸은 거티도 “그것을 원했다”(13.429)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위행위에 거티를 대상으로 삼은 것을 합리화한다. 블룸은 자신에게 희롱당한 부인들이 자신을 매질하고 산 채로 꺾질을 벗기겠다고 하자 “나는 위험을 즐기”(15.1086)고 “세련된 채찍질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15.1096)라고 말한다. 그들이 겪은 치욕에 공감하지 못하는 블룸은 현실에서 “안전한 남자”로 인식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블룸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15장에서 법정에서 서게 되자 블룸은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흉내 내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모면하려 한다. 블룸은 의사인 멀리건(Buck Mulligan)으로부터 “양성적으로 비정

상”(bisexually abnormal)(15.1775-76)이란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딕슨(Dr Dixon)은 “여성적 남성”(womanly man)(17.1799)인 블룸의 임박한 출산(15.1798-1810)을 알린다. 그러자 블룸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갑자기 “나는 너무나 엄마가 되고 싶다”(O I so want to be a mother)(15.1817)라고 외친다. 블룸은 죽은 아이를 합치면 13번째 아이를 출산하는(14.515-17) 퓨어포이(Mina Purefoy) 부인을 보고 무통 분만(twilight sleep)(8.378)을 생각할 정도로 여성의 산통에 공감하였지만, 이제는 출산의 고통을 조롱하듯이 산통도 없이 한 번에 8명의 아이를 낳는다. 블룸이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퇴적적 여성’의 표상인 출산의 몸으로 소비되면서 분자적 여성과 조우할 수 있는 여성-되기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의 동력인 조건 없는 ‘사랑’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블룸은 이번에는 스티븐을 찾으러 간 영국 군인들을 위한 환락가인 “10실링 하우스”에서 또다시 여성을 모방한다. 블룸은 사창가인 여성인 벨라(Bella)의 건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그녀에게 복종을 맹세한다(15.2864). 블룸이 가학자인 아버지의 권위를 잠시 벨라에게 위임하고 복종적인 여성을 흉내 내자, 벨라의 이름이 벨로(Bello)로 바뀐다. “이름은 속이”(16.361)는 것일 뿐이듯이 이미 사창가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10실링 하우스의 마담인 벨라는 벨로란 이름에 영향받지 않는다. 블룸에 의해 주어진 아버지의 권위에 속지 않으며 아버지의 권위가 아닌 여성으로서 블룸 위에 올라타고 담뱃불을 블룸의 귀에 지지며 신체적으로 블룸을 학대한다. 이런 학대를 받자 블룸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를 맡으”면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Not man. Woman)(15.2962)라고 외친다. 그러자 벨라는 블룸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서 그에게 여자의 옷을 입히며 그를 치장한다. 블룸에게 향수가 뿌려지고 겨드랑이의 털이 깎이고 그의 몸은 코르셋 끈으로 조여진다. 블룸은 사창가의 여자들처럼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전시하도록 요구받지만, 자신이 자초한 그 역할을 피해갈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린다.

블룸이 환상 속에서 여성으로 변용하는 것을 길버트(Sandra Gilbert)와

구바(Susan Gubar)는 블룸이 여성성을 조롱하는 것으로 읽는다. 이유는 18장의 결말에서 블룸이 몰리에게 아침상을 차려달라(김상욱 243, 재인용)고 했고 그것은 블룸이 여전히 가부장적 남성의 전형이라는 것이다.<sup>13)</sup> 블룸이 지문에 쓰인 대로 자신의 “땀 냄새를 맡는” 동작을 하며 여자라고 말한 것은 여성을 조롱하는 연극적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아침상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블룸이 ‘여성’이라고 외치는 그 대사 에서 블룸이 “여성-되기” 속으로 들어가 조우했을 수도 있는 그러나 재현할 수 없는 미분화된 차이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블룸이 벨라의 학대를 벗어나고자 자신도 여성이라고 외치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블룸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신의 신체에서 방출되는 분자적 여성과 조우하는 것이 아닐까. 블룸은 여성을 흉내 내지만, 고통받는 여성의 몸을 직접 체험하자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자신의 신체에 느끼며 성적 수모를 당하는 여성이 무엇인지를 즉자적으로 감각하는 반응이 아닐까. 블룸은 의도치 않게 남성의 신체인 자신의 몸에서 여성을 감각하고 소수자인 여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길버트나 구바와 달리 정신분석적 해석을 거부하는 들뢰즈에 따르면 블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외치는 것은 블룸이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도-마조히스트(sado-masochist)의 마조히스트가 아니라 희생자의 인격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Bogue 49)고 성이 무화되면서 “*n*개의 성”을 방출하는 “식별불가능성”(the imperceptible) 지대로 난입하는 것이 된다. “*n*개의 성”은 “두 개가 아닌 복수의 성에서 다양한 자극에 따라 다양한 성으로 변화하는 성적 에너지를 해방한다”(강미선 120, 재인용).

블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성의 옷을 입으면서 완벽하게 여성을 흉내 낼 수 있게 되었지만, 블룸이 꺾어야 하는 굴욕은 점점 심해진다. 더 나아가 벨라는 블룸이 아버지의 권위를 이미 잃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13) 블룸은 17장에서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바다오리의 달걀을 발견했다. 블룸은 그것이 이상해서 침대에 들기 전 ‘달걀’이라고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몰리의 오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것을 아침상을 차려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몰리의 오해일 수 있고 또는 독자의 해석일 수 있다.

몰리는 9개월 후에 보일런의 아이를 출산할(15.3142-43) 것이다. 이때 갑자기 블룸은 몰리를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외친다. 그러나 몰리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정작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것인지 언표하지 못한다. 언표되지 않은 그 의미는 빈칸(...)으로 남는다. “몰! 내가 잊었어! 용서해 줘요! 몰 .... 우리는 .... 아직 .....”(Moll! I forgot! Forgive! Moll .... We .... Still .....)(15.3151)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것인지 그 내용은 허공에 남는다. 블룸은 여성들의 공격을 무마하기 위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남성의 허위의식으로 여성을 흉내 내기 위해 벨라에게 복종을 자처했고 그래서 여성의 복장을 착용하면서 여성을 흉내 내는 데 성공한 듯 보였지만, 블룸은 보일런에 의해 “법적인 허구”(9.844)로서 아버지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즉, 자신의 남성성이 박탈당하는 것이 벨라에 의해 적나라하게 목격되자 다급하게 몰(Moll)이라 부르며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그 말은 빈칸으로 남지만, 그것은 가부장적 체제에서 재현될 수 없는 목소리이다. 블룸이 언표하지 못하고 느낄 수 밖에 없는 빈칸은 웅얼거림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블룸은 몰리가 자신의 계략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이제야 직시하는 것일까? 블룸이 남겨 놓은 빈칸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재현될 수 없지만, 블룸은 허공에서 떠도는 그 소리와 매개 없이 만난다.

사실 블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할 때는 단지 여성성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블룸이 불현듯 몰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남겨 놓은 빈칸(...)은 “정동”(affect)의 순간으로 이때 블룸은 언어의 한계 바깥에서 표면으로 부상하는 “이것임”과 마주한다. 정동은 조이스의 “현현”(epiphany)과 달리 ‘사이-시간’에서 ‘무엇’ 또는 “이것임”이 두뇌를 거치지 않고 신체로 직접 전달될 때 감각되는 무의식의 생산이다. 블룸의 진실은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비껴가는 비물체적 사건으로 ‘빈칸’에 존속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언표할 수 없는 의미는 웅얼거림으로 표면에 부상했고, 블룸은 언어로 매개되지 않는 사건과 불현듯 조우한다. 블룸이 합리적 인식에 근거한 의식의 영역을 넘어 “식별불가능성” 지대로 난입해 들

어갈 때 블룸은 소수파인 여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로서 여성-되기의 과정을 완성한다. 블룸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언어의 바깥으로 탈주하며 재현이 아닌 차이를 생산하는 역량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신의 신체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박탈되고 소수자로서 한 여성인 물리와 조우할 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념이 생산되고 블룸은 여성-되기의 과정을 완성하면서 소수자로서 생성의 주체가 된다. 블룸은 이후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가부장적으로 구조화된 현실로 돌아온 17장에서 블룸이 찾은 물리의 외도에 대한 해법으로 설명된다.

### 3.3. 재현이 아닌 차이

여성-되기의 과정을 완수한 블룸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블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물리의 밀회가 시작되는 4시 이후에 그의 시계는 작동을 멈추었고, 그때 그의 남성적 자아는 와해하기 시작했다. 블룸은 저녁 늦게 13장에서 모래 위에 “나는. ... 이다”(I. ... Am. A.)(13.1258-64)라고 쓰기 시작했지만 씻겨 내려갈 모래를 핑계 삼아 끝내 자신을 호명하지 못한다.<sup>14)</sup> 그러나 이후에 15장에서 이것임과 조우한 블룸의 변용된 신체는 언어의 한계 안에서 언어의 한계 바깥을 포괄하며 무의식을 생산하는 “되기”에 이르렀다.

환상 이후에 고삐 풀린 시간에서 현실로 돌아온 블룸은 잘 곳이 없는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챙겨준다. 블룸이 자신의 집을 떠나는 스티븐을 배웅할 때 블룸은 그들을 “맞아주는 하늘의 별들”(17.1039)을 본다. 우주로 확장된, 즉 시간이 공간에서 해방된 블룸의 사유 지평에서 아내의 밀회는 이제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15.4433). 블룸의 사유가 “중력의 지배를 받는 대지”(5.45-6)에서 해방되고 “평정심”(equanimity)(17.2177)에 이르자 아내의 밀회는 “자연의 피조물로서 ... 자연스럽고. ... 지구의 멸망처럼 재앙적이지도 않고. ... [끝도 없이 나열되

14)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파편적 서술이다.



는 범죄들만큼]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 그렇게 비정상적이지도 않고. ...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17.2178-94). 가부장적 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아내의 밀회는 신의 피조물이 아닌 자연의 피조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을 뿐이다. 평정심에 이른 블룸은 통념을 망각하고 “차이 자체”를 생산하는 내재성의 평면인 고른판 위에서 탈주선을 그린다. 그런데 조이스가 표면으로 부상시킨 물리의 의도는 사실 블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내”(17.659)에 대한 남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었다. 조이스는 그 문제의 해법을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인 대지에서 그려낸다.

#### IV. 포스트휴먼 대지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의 대지”인 『율리시스』의 18장은 조이스가 묘사하려는 비인간의 대지로 어떤 기성의 목소리도 잠결에 빠진 물리의 사유를 방해하지 못하지만, 간간이 들리는 기차 소리만이 물리를 현실로 데려온다. 신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환영”이 아닌 비인간인 물리는 대지에 기입된 다수자의 흔적을 지우면서 그 대지를 프리휴먼을 닮은 포스트휴먼이 서식하는 “고른판”으로 만든다. 초월성의 장을 포괄하는 내재성의 장에는 선형적 지식도 위계질서도 없는 순수 욕망의 차이로만 구성되어 있다. “신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U 10.172-73)라는 콘미 신부(Father Conmee)의 기독교적 역사관과 달리 18장은 들뢰즈가 말하는 ‘존재의 일의성’으로 존재와 존재자들 본성의 차이만으로 충만한 장이다. 내재성의 장으로서 탈영토화된 대지는 신이 “자신의 이미지대로”(10.149) 만든 최고의 피조물로서 인간인 물리가 그 이미지를 지우고 비인간으로 다시 시작하는 대지이다.

조이스에 의해 “인간의 환영”으로 해석되지 않는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인 물리는 자신의 입에서 ‘씨가 든 케이크’(seedcake)를 빼내어서

블룸에게 준 것을 기억한다(18.1574). 인간의 대지에서는 신의 피조물로서 남자인 아담(Adam)이 자신의 일부인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인 이브(Eve)를 만들었다면 포스트휴먼 대지에서는 대지의 여신(Gea-Tellus)(17.2313)으로 승격한 몰리가 “여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18.1578-79)는 블룸을 동반자로 삼아 포스트휴먼 대지를 “번식하고 증식”(8.33)할 것이다. 조이스가 블룸이 마지막 장에서 영원으로 가는 여권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L I 160)라고 했듯이 몰리는 포스트휴먼 대지에서 블룸에게 청혼하게 하고 청혼을 수락하는 “그래”를 영원히 반복할 것이다(yes ... yes ... yes ... yes ... yes ... and yes I said yes I will Yes)(18.1605-09). 포스트휴먼 대지에서 블룸과 몰리는 “‘에덴마을’(Edenville)과 통신”(3.39)을 끊고 ‘신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창조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탈영토화된 대지는 “죄의 자궁”(3.44)이 아닌 원죄를 모르는 사람들로 번식하고 또 번성할 것이다. 탈영토화된 대지에서 출산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프리휴먼을 낳은 포스트휴먼을 생산하는 창조적 행위가 된다. 몰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를 통해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 대지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자.

첫째, 화자의 목소리도 작가의 목소리도 사라진 18장은 이전의 장과 달리 온전히 몰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만으로 구성된다. 물론 블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시간도 무시간(none)으로 할당된 장이다. 몰리의 사유는 시계 시간에 속박되지 않는 대지에서 작동한다. 조이스는 블룸의 이야기는 17장에서 끝났다고 말했고 블룸은 17장에서 ‘검고 큰 마침표’(●)<sup>15</sup> 속으로 들어갔다. 저자인 조이스도 몰리의 말해지지 않은 ‘소리’를 통제할 수 없다. 몰리는 작가로 추정되는 “제임시”(Jamesy)를 부르면서 “오 제임시 누가 이런 일을 여성에게 부과했는지 모르지만, 빨래와 요리를 해야 하는 이 오물 덩이에서 나를 빼내 달라”(18.1128-30)라고 말한다. 몰리는 자신의 창조자에게 자신에게 여성의 역할을 부여하지 말라고 말한

15) 본 논문이 참조한 판본에서는 큰 마침표가 빠져있지만, 인쇄업자가 이물질이 묻은 것으로 생각하고 빠뜨렸다. 후에 조이스가 마침표를 첨가하도록 수정했다.

다. 조이스는 작가로서 인물을 창조했지만, 자신의 이미지대로 인물을 만들지도 않고 인물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덧씌우지도 않는다. 조이스는 이렇게 자신의 피조물인 인물들에게 아버지로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라는 장치를 통해 보여준다.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는 자신의 창조자로부터 억압할 수 없는 욕망을 펼치는 자율권을 얻어낸다. 이로 인해 독자는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인 낯선 언어와 만나면서 비로소 물리의 목소리가 침묵 당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리는 블룸의 계획에 따라서 보일런과 자신의 집에서 만났고(18.1007-08) 그래서 자신이 상간녀가 된 것은 블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18.1516). 다수자인 화자에 의해 물리의 목소리는 재현될 수 없었고 물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자신의 신체에 기입된 통념을 지우는 물리의 사유는 비로소 의미작용의 한계를 초과하며 자신의 모국어에서 외국어가 되는 소수적 사용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터전을 만든다.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이 쓰는 글이 아니라 모국어의 문법이나 담론의 규칙을 횡단하면서 지도를 만드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배 담론에서 벗어난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는 “미분화된 심연”(undifferentiated abyss)에서 표면으로 부상하는 낯선 언어로 남성적 글쓰기에서 소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물리는 남성적 글쓰기를 모방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규범 언어에 무지한 물리의 사유는 모방도 아니고 화자에 의해 매개되는 내적 독백도 아닌, 자기-생성으로 의미작용의 바깥에 있는 “알”에서 부상한다. 단지 8개의 마침표만으로 쉽 없이 이어지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대명사를 사용하고 순차적인 시간과 선형적 인과관계를 따르지 않아 비논리적(allogical)으로 들릴 수 있는 물리의 사유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래서 남성적 글쓰기에 포획될 수 없는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는 남성적 글쓰기로 재영토화될 위험도 없다. 여성이 제 나뉠의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언표행위의 주체가 되는 여성주의자와 달리 물리의 사유는 “퇴적적 대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 밑으로 또는 그것을 가로질러 가는

분자적 여성”(A *Thousand* 276)이다.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는 소리의 내재적 성질인 소음(noise)이나 소리(cry)가 기호화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의 물질성이 그대로 보존되(*The Logic* 187)는 그래서 음성화되지 않은 “전인간”의 소리이다. 그 소리는 목소리로 이행하기 이전의 “전음성적”(prevocal) 음향체계인 의미화되지 않은 소리와 같은 층위에서 작동한다.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는 총체적 인간 이전의 소리 즉, 조이스가 말하는 “프리휴먼”의 소리이며, 들뢰즈가 말하는 비인칭 언어이다.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는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심층의 요동치는 “빠거덕거리는 소리, 마찰 소리와 파열하는 소리, 내적 대상들의 폭발음, 나아가 이들에 응답하는 기관들 없는 신체의 분절되지 못한 씹씹거림”(The *Logic* 193)이다.

셋째, 신의 판단도 가부장적 질서도 18장의 대지에서 지워진 것처럼 성별이나 성차 역시 대지를 작동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 거창한 말에 “콧방귀를 끼는”(8.113) 물리는 당시의 여성주의자를 지칭하는 별칭(bloomers)도 bloom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라고 말한다(18.840). 물리는 그만큼 ‘퇴적적 정치학’에 무지할 정도로 무심하다. 물리가 남성의 몸보다 여성의 몸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이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신체의 부드러운 곡선미 때문이다. 물리가 남성이 되어 보고 싶은 것도 남근 선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이다(18.1381-83). 물리가 좋아하는 부드러움은 그것이 여성적 특질이거나 남성적 특질로 말해지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아니라 그것의 부드러운 성질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후에 살피볼 폭력성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리는 여성에게 주어진 ‘가정의 천사’란 역할에도 무심하다. 물리는 대신 욕망의 주체가 되고 직접 가정의 생계도 책임지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물리가 “자신이 15살에 알게 된 것을 더블린 여성은 5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될 거다”(18.887)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여성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와 예측된 미래로 “쟁여진 현재”(The *Logic* 62)에 그들의 삶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다. 성별과 성

차가 부차적인 물리의 사유에서 물리가 여성의 특질과 남성의 특질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양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성성은 이분화된 성에 고착된 사유보다 더 나은 개념이 아니다”(A Thousand 276). “프리휴먼이자 포스트휴먼”으로 인간의 환영이 아닌 물리가 만드는 대지는 “n개의 성”을 방출하는 공생적인 “다양체”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18장의 대지에는 폭력이 없다. 그것은 조건 없는 비폭력이다. 물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남자들이 끌려간 전쟁을 언급하며 그것에 반대한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물리는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여성이 하는 정치이다.<sup>16)</sup>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여성이 하는 정치에는 전쟁이 없고 술에 취한다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18.1435-39). 물리가 싫어하는 전쟁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실패한 명분”(9.553)이 아니라 “멋진 남자들을 죽이는”(18.396) 폭력을 막는 실질적인 명분 아래에서 작동한다. 거대담론을 싫어하는 물리가 거창하게 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여성이 하는 정치는 생물과 무생물<sup>17)</sup>과도 “상호 평등”(16.1099)의 관계를 이루는 공생의 터전을 이룬다. 물론 물리가 말하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6) 르 퀴(Ursula K. Le Guin)은 『어둠의 왼손』(The Left Hand of Darkness)에서 현실의 인류에게서 성별이라는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 남는다고 본다(정현목, 황의진 153, 재인용)라고 했는데, 이후 40주년을 기념하는 서문에서 “전쟁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려던 내 마음은 남자가 없는 세상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것] 남자 자체가 없는 세상, 늘 남자인 존재, 자신을 증명하려는 존재가 없는 세상에.....” (르 퀴 13)라고 말한 점에서 물리가 말한 ‘여성’이 하는 정치’가 함의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17) 조이스는 이미 15장에서 생물체는 물론이고 무생물체에도 목소리를 부여했다.

## V. 나가며

본 연구는 블룸이 가부장적 아버지의 권위를 벗고 한 여성을 이해하는 여성-되기의 과정을 완수하는 것을 추적하였다. 이후에 블룸의 인식의 지평은 인간중심의 중력으로 작동되는 대지가 아니라 “바람을 찌는 사람을 기다리”(1.661-62)는 공허(void)로 확장된다. 그리고 예측된 미래가 아닌 도래할 미래를 위해 프리휴먼을 지금 여기에 불러내고 포스트휴먼으로 현실화하는 공생의 대지는 물리의 말해지지 않은 사유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이스가 묘사하는 프리휴먼에서 발아하는 포스트휴먼은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하는 고른판인 생성의 대지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포스트휴먼이란 신조어를 만든 조이스로부터 포스트휴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금의 포스트휴먼과의 연계성을 고찰한 본 연구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홍성욱 9)에서 그 둘을 수렴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는다. “모든 생명체에 인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홍성욱 14)할 수 있는 감수성은 조이스의 경우를 보면 여성-되기를 통해 소수자인 한 여성을 이해하는 블룸을 창조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문학사에서 “영웅은 아니지만 거대한 인물”(What Is 171)로 블룸을 거론하는 것도 블룸이 여성-되기를 수행하고 새 인류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측된 미래가 아니라 도래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포스트휴먼의 감수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조이스가 블룸을 통해 구현한 데에서 포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연구)

## 인용문헌

- 강미선. 「“흐름”으로 읽는 『율리시스』의 “세 개의 장”」.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27권 2호, 2021, pp. 105-35.
- 김상욱. 「포스트 모던 조이스: 조이스 국외 연구동향」. 『안과밖』, 제23권, 2007, pp. 222-50.
- 김재희. 『시몽동의 철학』. 아카넷, 2017.
- 로도워, 데이비드 노만. 『질 들뢰즈의 시간기계』. 김지훈 옮김, 그린비, 2005.
- 르 쿤, 어슐러 K. 『어둠의 왼손』. 최용준 옮김, 시공사, 2014.
- 무작정정계섭. 『말로 배운 지식은 왜 산지식이 못 되는가』. 어문학사, 2020.
- 엘리스, 얼 C. 『인류세』. 김용진, 박범순 역, 교유서가, 2021.
- 잭슨, 로즈마리. 『환상성: 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2.
- 정현목, 황의진. 『낮선 이야기는 우리 곁에 있다』. 반비, 2024.
- 조이스, 제임스. 『율리시스』. 이종일 옮김, 문학동네, 2023.
- 피셔, 마크.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안현주 옮김, 구픽, 2019.
-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 Birmingham, Kevin. *The Most Dangerous Book*. Head of Zeus, 2014.
- Bogue, Ronald. *Deleuze and Guattari*. Routledge, 1989.
- Borg, Ruben. “Figures of the Earth: Non-Human Phenomenology in Joyce.” *Humanities*, vol 6, no 3, 2017, pp. 1-10.
- Davis, James. *A Reading of Selected Writings of James Joyce in Relation to the Works of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2005. The U of Leeds, PhD dissertation.
- Deleuze, Gilles. *The Logic of Sense*. Translated by Mark Lester and Charles Stivale, edited by Constantin V. Boundas, Columbus UP, 1990.

- . *Proust and Signs*.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U of Minnesota P, 2000.
- .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 of Minnesota P, 1987.
- . *What Is Philosophy?* Translated by Hugh Tomlinson and Graham Burchell, Columbia UP, 1994.
- , and Félix Guattari.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Robert Hurley, et al., U of Minnesota P, 1983.
- Ellmann, Maud. "Penelope without the Body." *European Joyce Studies*, vol. 17, pp. 97-108.
- Gunn, Ian and Clive Hart. *James Joyce's Dublin*. Split Pea Press, 2022.
- Hayles, Katherine N. *How We Became Posthuman*. U of Chicago P, 1999.
- Joyce, James.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vol. 1, Viking, 1966.
- . *A Portrait of an Artist as a Young Man*. Shina-sa, 1977.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 Books, 1986.
- Kiberd, Declan. *Ulysses and Us: The Art of Everyday Life in Joyce's Masterpiece*. W. W. Norton and Co., 2009.
- Nabokov, Vladimir. *Lectures on Literature*, edited by Fredson Bowers, Harvest Books, 1982.
- Shakeperare, William. *Hamlet*.  
[https://internetshakespeare.uvic.ca/doc/Ham\\_Q1M/scene/5/index.html](https://internetshakespeare.uvic.ca/doc/Ham_Q1M/scene/5/index.html).  
 Accessed 12 Oct. 2024.
- Ramey, James. "Vampiric Textuality: Posthumanist Parasitology." *Joyce without Borders: Circulations, Sciences, Media, and Mortal Flesh*, edited by James Ramey and Norman Cheadle, U of Florida P, 2022, pp. 95-119.



**Abstract**

## Joyce's Posthuman and Posthumanism

Misun Kang

This paper is inspired by Joyce's remarks on the last episode of *Ulysses*, where he aims to depict an earth that is both "prehuman and presumably posthuman." While some critics interpret Molly, in the last chapter as "primordial matter" or a "body without organs," my focus is on the posthuman aspec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human. I argue that Joyce's portrayal of the posthuman aligns with a critique of liberal humanism, as he examines anthropocentrism through the lens of an extramarital affair within the patriarchy. Using Deleuze's concept of "becoming-woman," I explore how Bloom's transformation into a "womanly man" connects with the broader themes of the Anthropocene. The analysis reveals that Bloom completes the process of becoming-woman by seeking forgiveness from Molly in a realm where reality and fantasy blur. Molly, already embodying posthuman traits, affirms Bloom's transformation by saying, "yes I said yes I will Yes," leading to their alliance in a new assemblage distinct from traditional Adam and Eve imagery. Ultimately, Molly illustrates a posthuman earth by erasing existing human knowledge.

■ Key words: prehuman, posthuman, primordial matter, anthropocentrism, patriarchy, becoming-woman, assemblage

(프리휴먼, 포스트휴먼, 태초의 물질, 인간중심주의, 가부장제, 여성-되기, 배치)

논문접수: 2024년 11월 16일

논문심사: 2024년 11월 16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14일